

차 례

결과보고서 요약문

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방향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2) 실제추진 현황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관련분야 기여도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3.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기타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한국어문학연구소		
사업명	<통일문법>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중국 조선어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황선업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20,000,000원

1. 사업목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문법’을 현실에 적용하고 전파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7년도에 북한 교과서의 문법 서술 내용을 분석한 데 이어 북한 문법 교과서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 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북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통일 문법 구축을 진행하여야 하나 직접 접촉이 어려운 현실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우선 북한 학자들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내의 조선어 연구자들과의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였다.

2. 사업의 내용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의 내용을 음운, 어휘와 형태, 통사, 규범 및 기타의 내용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공자 4명(모두 국문과의 전임교원인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 남한 문법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북한 문법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어 사용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인데 그 결과 다소 학술적인 기술의 엄밀성과 일관성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나 남한 문법에서 다루지 않는 운율이나 화용의 측면에 대한 강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8월에는 중국내의 조선어 연구자들과의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원까지를 포함한 연구진 전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학술 교류를 하였다. 북한과의 접경이자 조중 교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단동의 요동대학과 중국내 한국 연구의 본산인 연길의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그곳의 한국어(조선어)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중국내의 조선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 교육 방식 및 교재, 북한과의 교류 상황, 중국 자료의 입수 및 조사 등을 시도하였다.

3. 사업의 성과

북한의 문법은 문법 체계나 이론의 설명보다는 언어생활에서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휘에서 단어의 변별적 차원의 ‘장단’보다는 표현과 관련된 장단을 교육한다거나 억양, 세기 등 ‘초분절음’에 대한 교육 내용이 강조되는 점, 실제 말하거나 표현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은 북한 문법 교육이 실생활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에 비해 남한의 문법 교육은 문법 항목이 탐구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법은 언어생활의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사고 체계를 정립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이 모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내 조선어 연구자들과 교류를 통해 앞으로 북학 학자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중국내의 조선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된 점은 이번 연구의 큰 소득이다.

이번 연구는 차후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 문법의 통일을 넘어 규범의 통일을 준비
- 통일된 어문 규범은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 통일 문법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차세대 육성의 기반 마련
- 해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문법서 편찬을 위한 기반 마련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통일문법>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중국 조선어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
- 기관명: 한국어문학연구소
- 총 사업비: 20,000,000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남한과 북한의 언어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문 규범의 바탕이 되는 문법이다.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단 이후 각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문법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각기 상이한 어문규범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한의 어문 규범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법 교과서 내용의 차이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남한과 북한의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통일된 문법의 기술을 가능케 하며, 통일된 문법의 완성은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맞춤법과 표준어 등의 어문 규범을 정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통일 이후의 국어 생활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과제이다.

○ 목적

- 북한의 규범문법(혹은 학교문법)이 남한의 규범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 차이를 좁힐 만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북한의 문법 교과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남한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문법 교과서가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 기반하여 편찬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올해에는 《조

《선문화어문법규범》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고찰을 통해 통일 문법 정립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한다.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 자료로 삼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문법에서 표준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다. 작년의 1차 연구 과제에서 분석했던 북한의 각종 문법 교과서도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북한의 표준 문법에 있어 기준점이 되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표준 문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북한 문법의 분석 외에 북한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선 중국 내의 조선어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교류 모임을 갖고 중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한다. 이를 통해 상호 학술 교류를 증진시키고 공동 연구를 위한 인적, 제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앞으로 북한 내의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 기본방향

- 북한 표준문법 분석과 성격 파악: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 대한 음운, 형태, 통사, 규범 등의 분야별 분석
- 남북한 표준문법 대조: 분석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의 규범이나 학교 문법과의 대조
- 남북한 표준문법의 이질성이 조선족 문법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지 조사: 중국내의 한국어 교육 및 학술 연구에 있어 남북한 규범의 반영 양상 고찰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 중국내 조선어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 북한과의 접경지대이며 교류 루트인 단동에 위치한 요동대학교 중국내에서 한국어학 및 한국학연구의 본산인 연길의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학술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초석을 놓음.
- 통일 시대 통일 문법 구축을 위한 과제 파악: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함.

□ 기대효과

- 남북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 통일 시대를 대비한 문법 연구의 심화
-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어문 규범의 기반 구축
- 학술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4월	분석 범위와 방향 결정
5월	분야(음운, 형태, 문법, 규범)별 분석
6월	분야(음운, 형태, 문법, 규범)별 분석 및 점검
7월	분야(음운, 형태, 문법, 규범)별 분석, 중국 교류 준비
8월	중국 요동대학교 연변대학 방문 교류
9월	중국 방문 결과 점검, 분야별 집필
10월	분야별 집필 및 검토, 통일기반구축학술대회원고 발표 집필
11월	분야별 집필 종합, 통일기반구축학술대회 발표
12월	분야별 집필 종합 원고 검토 및 수정
1월	결과보고서 작성
2월	사업 결산

2) 실제추진 현황

- 연구대상 자료의 분담
 -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을 음운, 어휘 및 형태, 통사, 규범 및 기타의 내용으로 나누어 연구진이 자신이 전공에 따라 분담.
- 분담 내용을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분석
 - 북한 규범 문법을 영역별로 조망
- 문법의 분야별 비교 검토를 종합하여 검토 후 수정
- 중국 요동대학과 연변대학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어음론 부문(담당: 김현 교수)

- 전반적인 특징: 언어 사용의 측면을 강조
- 북한의 문법은 언어의 구조와 사용을 분리하여 구조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언어의 구조를 언어 사용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이른바 ‘언어구조만능주의’, ‘언어체계중심주의’를 배제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문법에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 모음의 체계와 언어 사용
- 혀의 전후 위치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양분하는 이분법적 방식을 따르지 않고, ‘끝모음’(ㅣ), ‘앞모음’(ㅞ, ㅟ, ㅠ, ㅡ), ‘가운데모음’(ㅡ), ‘뒤모음’(ㅓ, ㅕ, ㅗ, ㅛ)으로 4분하고 있다. 이는 모음 삼각형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모음이 실제로 어떠한 위치에서 발음되는가에 중점을 둔 것이다. 반면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높낮이”가 혀의 전후 위치 및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뉜 부류에서의 “상대적인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모음 체계

	끝모음		앞모음		가운데 모음		뒤모음	
	길쭉모음	길쭉모음	둥근모음	길쭉모음	길쭉모음	둥근모음	길쭉모음	둥근모음
높은모음	ㅣ	ㅞ	ㅟ	ㅡ	ㅓ	ㅕ		
낮은모음		ㅠ	ㅡ		ㅗ	ㅛ		

이처럼 혀의 높낮이를 실제 조음 상태와는 달리 분석한 것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음교체 및 모음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혀의 높낮이가 같지 않은 모음들을 묶어 ‘높은모음’과 ‘낮은모음’으로 묶고 그들 각각의 ‘소리느낌’을 “크고 깊고 어둡고 굵고 밍고 엄숙하고 의젓하고 장엄”함과 하다는 ‘소리느낌’과 “작고 얇고 밝고 가늘고 곱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알밋다는 소리느낌”으로 규정한다. 예) 반짝-번쩍, 땡땡-땡땡, 획-획.

- 운율적 요소의 강조

운율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음운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3장에서 문장의 발음 즉, 고저와 강세, 휴지, 속도, 음색 등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음운론의 수준에서 나아가 실제의 언어 사용에 관련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어음운론에 해당되는 2장 1절의 3. 소리마루 부분에서는 단어 차원에서의 고저, 음장, 강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형태론 부문 (담당: 이진호 교수)

- 단어와 구조

단어의 정의, 형태론의 연구 영역은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과 이견이 많은 부분이다. 북한 문법에서는 이 문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 품사

품사론은 전통적인 형태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국어의 품사를 몇 개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 북한 역시 ‘감동사’라는 특수한 품사를 인정하는 한편 조사는 별도의 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품사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 토

북한의 ‘토’는 남한의 표준 문법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서, 조사와 어미, 심지어는 접사까지도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북한의 ‘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여 ‘토’를 설정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 유용한 것인지의 여부 등 ‘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 **문장론 부문 (담당: 황선엽, 문숙영 교수)**

- 문장과 문장 결합

남한 학교문법에서는 ‘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언급을 별로 하지 않는 데 반해, 북한문법에서는 단어의 결합도 종류별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분류도 세움결합, 보탬결합, 들임결합, 꾸밈결합, 엮음결합 등의 단순결합, 합침결합, 맞섬결합, 가림결합 등의 벌림결합, 이 외에 확대결합 등, 다양하고 상당히 생소하다. 이런 단어 결합을 중히 여기는 배경과 분류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 문장성분

남북한 문법은 문장성분의 종류와 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문장성분의 단위와 개별 문장성분에 대한 풀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문법은 앞에서 ‘구’의 종류를 상당히 세분한 것과 맞물려, 문장성분의 단위를 상당히 자세히 나누고, 문장성분의 대상을 확장한다. 일례로 ‘밤이면 밤마다, 학교란 학교는’ 등이 동일 성분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성분의 단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설정의 배경을 탐구하였다.

- 문장의 갈래

문장의 갈래는 북한문법의 경우 ‘감탄문’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차이 외에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그러나 단순문과 확대문, 단일문과 복합문의 구별은 남한문법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남한문법에서는 용언이 두 개이면 복합문으로 분류하는 데 반해 북한문법은 주어 하나이면 용언이 두 개이더라도 단일문이다. 이런 처리는 아마도 북한문법에서 규정하는 문장성분과 문장성분의 단위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문법과 달리 복합문을 엄격하게 규정한 배경과 근거를 살펴보고, 이것이 규범문법이라는 성격에 기인한 것인지 실제 문장구조에 대한 입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탐구하였다.

○ **요동대학과 연변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실태 파악, 교재 및 연구서 입수 및 조사, 북한과의 교류 현황 및 동태 파악,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학술적, 인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 **관련분야 기여도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단 이후 독자적으로 정립된 남한과 북한의 문법 차이를 알기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업임.

○ **어문규범의 통일을 준비**

- 남한과 북한의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통일된 문법의 기술을 가능케 하며, 통일된 문법의 완성은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맞춤법과 표준어 등의 어문 규범을 정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임.

○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의 어문 규범**

- 통일 이후의 국어 생활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과업임.

○ **통일 문법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규범 문법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 시대 규범 문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어문 규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는 계획 대비 실제 연구 수행 정도, 연구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 실제 연구된 내용의 가치와 효용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먼저, 실제 연구 수행은 계획대로 완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 단계에서 분석 대상 확정, 작업의 분담 등에 대한 기초 작업이 끝나 있었던 것이 사전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참여 연구진들이 같은 학과에 소속되어 있어 회의나 협의 과정이 수월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 **사업의 효율성**

- 연구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 배분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의 분야를 크게 음운, 형태, 통사, 기타로 나누고,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씩 하여 총 4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한 점이 특히 유효했다. 연구진이

학교문법, (현재 마련 중인) 표준문법, 어문규범 등에 다년간의 연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연구 진행과 결과 분석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

○ 사업의 영향력

- 실제 분석 내용도 앞으로 활용할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간의 북한 문법 분석은 단원 체제, 용어, 규범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는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문법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만하다. 또한 통일 문법의 틀을 논의할 경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의 발전가능성

- 국어원이나 통일부의 어문 규범 및 학교 문법 통일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시에 그 기초를 마련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북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제적인 통일 문법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번의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될 것이므로 국가 단위 나아가 민족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될 여지가 많다.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최근 10여 년 동안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어 최근의 북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없었는바 조사 및 연구, 분석이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북한과의 직접 교류가 늘어나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여러 차례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에 구축된 요동대학 및 연변대학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나아가 북한 학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통일 문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이나 재일동포, 재미교포들의 한국어 교육시 적용되는 문법의 통일 문제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우선 일본 내의 조선학교 문법 교재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 일본 내의 한국학교에 비해 조선학교의 수가 많은 편이며 별도의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통일 문법 편찬 시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본 연구처럼 통일 문법이라는 거대 주제를 향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과제는 일년 단위로 계획되는 것보다 ‘다년 연구 과제’로 계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산 등의 물리적인 조건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년 과제의 형식도 받고 매년 평가를 거쳐 연구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물론 연구 연차에 따라 연구원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연구의 진행 방식, 연구진 구성에 따라 연구비 사용의 융통성이 필요할 듯하다. 현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 기본적인 자료 분석과 연구가 중심인 과제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연구 내용과 특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유형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기타

- 없음.

3.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서울대학교 2018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통일평화 연구와 과제” 발표